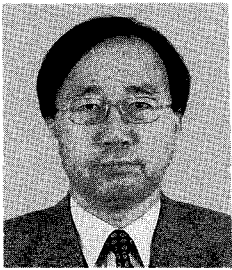


## 산란계 산란시 난각질 개선을 위한 사양관리



안 형 진

(주)에그리브랜드 퓨리나코리아  
양계사업부 이사

**산**란계의 난각질은 완전 식품인 계란의 품질을 보전하는데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품질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특히,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여 계란의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서 지속적으로 양계산업이 발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좋아하여 찾는 난각질을 만들어야 한다.

### 1. 소비자가 찾는 난각질

소비자가 진열된 계란을 손쉽게 집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상한 반점 및 퇴색된 계란이 없이 진한 갈색이 선명해야 한다. (특히, 대부분이 갈색란인 우리나라에서는 선명한 갈색이 더욱 맛있어 보임.) 어느 정도는 단단하여 유통 및 수송 과정 중에 깨지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모양도 계란 고유의 형태를 갖추어 거부감이 없어야 하며 표면도 모래가 뿌린 듯 오돌토돌하지 않고 매끈하여야 하며 오물, 오점이 없이 깨끗하여야 한다.

### 2. 우수한 난각질을 위한 사양관리

#### 1) 철저한 방역 관리

방역 관리에는 대중이 통하지 않는다. 가금티푸스, ND, AI, IB 등 무서운 질병이 늘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완벽히 차단하여 외부 사람, 차량의 출입을 막아야 한다. 이제 우리

도 선진국처럼 종업원도 반드시 사워하고 들어가는 시설을 해야 한다.

소독도 프로그램에 따라 계사 내·외부 환경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백신도 타협없이 철저히 접종하며, 접종 후 반드시 혈청 검사를 통하여 항체가를 확인하여 부족하면 보완하여야 한다.

산란기간 동안에도 최소한 2개월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혈청검사를 하여 계군별 항체가 변화를 관리하고 있어야 한다. 질병에 감염되거나 그냥 가볍게 스쳐지나 가더라도 난각색은 제일 먼저 퇴색되며 좀더 진행되면 계란 모양이 이상해지며 계란 외부에 이물 등이 생겨 상품성이 떨어진다.

계분상태도 늘 확인하여 계란에 계분이 오염될 확률을 줄여야 한다.

또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소비자가 안전하게 사먹을 수 있는 계란을 생산하여야 한다.

## 2) 난중관리

주령이 많아지면 표와 같이 난중이 커지면서 난각 두께가 얇아진다.

칼슘 분비량은 일정하나 계란 표면적이 넓어지면 난각이 얇아진다. 걱정난중의 계란 생산을 위해서는 육성시 체중관리가 잘되어 과비되지 말아야 한다. 만약 난중이 과도하면 사료

표. 주령별 난각, 난중 변화

주령	난중 (g)	난각 무게 (g)	비중	난각 두께 (mm)
32	55.9	5.23	1.089	0.367
44	57.2	5.27	1.084	0.366
56	59.1	5.34	1.082	0.356
68	64.0	5.38	1.077	0.353

급이량을 수당 3g 정도 줄여 난중과 산란율을 파악한 후 난중만 줄면 줄인 급이량을 유지하며 산란율도 줄면 다시 급이량을 늘리며, 난중 및 산란율에 변화가 없으면 다시 한번 사료급이량을 줄여 적절한 난중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3) 환경관리

계분 작업을 자주하여 암모니아가스 발생을 줄이며 환기를 적절하게 하여 계사 내 먼지가 적어 계란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계사 내 환경관리가 닭을 위한 것에서 한 단계 나아가 계란의 품질 향상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 4) 스트레스 최소화

가능한 한 계군에 스트레스가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 계란이 잘못 될 가능성을 줄여야 하며 특히 오후 이후에는 더욱 스트레스가 없도록 한다. 야생조류, 개, 고양이 등이 출입해서는 안 된다.

## 5) 집란 관리 철저

집란을 자주하여 계사 내에서 계란이 이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계란 창고에서도 적재 시 너무 높지 않게 쌓아 깨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제, 계란 생산을 단순히 양적인 산란을 향상에서 한 단계 나아가, 소비자가 즐겨 찾도록 난각색이 선홍색이며 깨끗할 뿐만 아니라 실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먹음직스럽게 생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관리해야 한다.

우리 양계인들은 완전 식품을 생산한다는 사망감 하에 소비자의 입장에서 더욱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양계**